

#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오늘 예배 후 1월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전교인 사진 촬영이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 각 공동체 연합 예배가 2월 6일 (Waitangi Day)에 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과 첫 만남을 통해 성도의 좋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오전 10시 30분 장소/ 윈 트리 힐
- 2020년 성경 정독 100일 운동이 2월 3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범위/ 구약은 역사서,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일일 4장씩).
- 2월 10일 주간부터 대심방을 시작합니다. 신청서에 장소(가정 또는 사업장)와 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 목, 금요일, 신청서 본당 입구).
- 2020년 갈보리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신앙 훈련은 말씀(양육)과 기도(능력)입니다. 또한 30, 40대를 세우는데 많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금요 기도회가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에 갈급한 성도는 누구든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도난당한 음향 시스템에 대한 보험 청구서가 교회에서 요청한 그대로 인정되어 지급 받았습니니다.
- 인턴쉽 과정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한 장신대 학생들(장요한, 김하경, 이연우) 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 2월 교회사역일지

- 2월 6일(목) 공동체 야외예배
- 2월 11일(화) 대심방
- 2월 16일(주일) 제직회
- 2월 23일(주일) 3040 주일
- 2월 26일(수) 공동체 주관예배(내팔)

## 2월 기도순서

- 2월 2일 (주일) 김교섭 장로
- 2월 5일 (수) 강동호 집사
- 2월 9일 (주일) 김철재 집사
- 2월 12일 (수) 김선화 집사

## 2월 예배봉사자

- 예배 안내 김석목, 김자경
-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민광호
-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04호 2020.01.26

#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금 주 기 도
박상영 형제
다음 주 일
이예찬 형제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인도자
✧찬 송	-----	다함께
✧신앙고백	-----	다함께
찬 송	-----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	인도자
찬양대찬양	-----	나무십자가찬양대
설 교	-----	이태한 목사
찬 송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김민경 집사  
마가복음 9:38-41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  
이태한 목사  
423장  
다같이

## 선교란

###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생명나무 공동체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캄보디아가 크메르루즈 공산혁명 정권을 무너뜨린 지 41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명 “빨랫빨 마까라.” 1월 7일이라는 말입니다. 공산혁명 정권을 이기고 민주주의 개발을 위해 승리했다는 이날 사람들은 거리마다 깃발을 들고 성대하게 승리의 날을 기념합니다. 캄보디아를 아직도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1년 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나라가 아직도 크메르루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캄보디아의 현실, 그것을 단순히 사람들의 인식의 실수라고 나무라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부조리의 큰 그림자가 캄보디아 사회를 덮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오늘 이 나라를 있게 한 힘은 소수의 권력의 통치자들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이었음에도 오늘의 권력은 아직도 이 나라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흉은 아닐는지, 그 가운데서 뿌리내리고 미미하나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독교와 복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생명나무공동체 연합 성탄잔치/** 아실지 모르지만, 캄보디아는, 헌법에 명시된 불교국가로서 성탄절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차이나 5개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탄절이 지난 29일 주일에 오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서벌 성탄 축하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한 개 교회와 두 개 기도처, 다섯 개 마을 170여 명의 교우들과 180여 명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성탄 축하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연 중 한 번 있는 큰 잔치이기에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로 성탄의 메시지와 복음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생명나무 공동체 표어/**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딤후 4:5-11)로 정하고 2020년 생명나무 공동체의 기초를 바르게 다지려 합니다. 말씀 훈련과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도 있게 할 것이며 1월 서리집사 7인을 세우게 됩니다. 제직회를 구성하고 2월에는 장로 1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조직교회로서의 면모를 세워 자치/ 자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합니다. 리더십을 세워 가는 일에 현지인의 기준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리더십을 세워 가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 말씀과 기도를 훈련함에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 서리 집사 7인, 제직회 구성 장로 1인이 선출되도록.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는 교회, 주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2.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시작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도록.

## 나눔란

### 2020년 1월 19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창세기 2:18~25

한국은 은근히 혼자 사는 것을 부추기며 이혼이나 졸혼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2:18) 이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실패거나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원래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것이었기에 아직은 완성으로 나아가는 미완성 단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2:18) 말씀하신 후 갑자기 각종 들짐승과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셔서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 스스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강요가 아닌 스스로 인정하고 느끼게 하시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만선의 기쁨보다는 먼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눅 5:8)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자기 실존을 자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며 옳드림으로 결핍된 인생을 충만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에제르’는 구약성경에 36번 나오는데 그중 35번은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쓰였으며 나머지 한 번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인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하셨으며(고전 11:11-12)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2:21)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또 갈빗대가 뽑히는(2:21) 아픔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되듯이 누군가 나의 돕는 배필의 희생이 있었고 지금도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십니다(2:22). 그러기에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기에 아담은 하와를 첫눈에 알아보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니 여자라 부르리라(2:23)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인정하며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혼식에 대한 교훈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큰 비밀의 말씀입니다(엡 5:31-32). 그렇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신(창 1:28)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려면 가정이 다시 세워져야 하며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고난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교회는 가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며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기에 가정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로써 살아가는 갈보리 교회와 온 가정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